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환아등록 및 후원문의 064-752-3300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1066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음력 7월 12일)

여름 끝자락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막바지 여름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첫 정기인사 단행

'빅3' 교체… 양제윤- 김인영- 조상범

기획조정실장 도의회사무처장 안전건강실장

승진 137명 포함 총 699명 규모… 8월 25일자 시행
前 도정 신설 15분도시·특별자치분권추진단 폐지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단행한 첫 정기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안전건강실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 전부 교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하반기 정기 인사(25일자 시행)를 예고했다.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후 처음 단행된 정기 인사에서 699명이 자리를 교체하거나 신규 임용됐다. 또 이 가운데 137명이 승진했다.

>> 해설 2면·인사명단 11~13면

제주도 공무원 조직 '빅3'로 불리는 이사관 자리는 전부 교체됐다.

기획조정실장에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이 2급 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하며 발탁됐고, 도의회 사무처장에는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마찬가지로 승진 발령됐다.

조상범 의회 사무처장은 6개월 만에 다시 안전건강실장으로 복귀했다. 양기철 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개발공사로 파견을 간다.

3급 국장급을 살펴보면 제주시 부시장에 국회사무처에 파견됐던 채종우 부이사관이 발탁됐으며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마찬가지로 제주RISE센터로 파견을 갔던 변영근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또 도시건설국장에는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이, 교통항공국장에는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이 각각 발령됐다. 오영훈 전임 도정에서 신설된 15분도시추진단과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민선 9기 조직 개편으로 인해 폐지되지만 현 단장과 강 단장은 본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관광교류국장에는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이 임명됐으며, 미래산업국장은 내부에서 발탁돼 장철원 미래성장과장이 직급 승진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국장에는 조선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이 발령됐고, 공공정책연수원장은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이 맡는다.

신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이 직급 승진하며 맡았고,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도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고 직급 승진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이 전보됐으며,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과 한시조직으로 새정부경제추진단장을 이끌었던 송은미 부이사관은 각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RISE센터로 파견을 간다.

또 김명준 안전정책과장도 이번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국회 사무처로 파견을 간다.

이밖에 신설된 기본사회추진단에는 제주테크노파크로 파견을 간 고민정 서기관이, 기후경제부지사 직속 AI혁신추진단장에는 안혜영 서기관이, 행정부지사 직속 노동안전감독에는 윤선호 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421명·서귀포시 463명 인사

부시장, 제주시 채종우·서귀포시는 김원칠 유임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25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제주시의 인사 규모는 승진 123명, 전보 250명, 인사 교류 28명, 신규 임용 20명 등 421명이다.

특히 5급 이상 승진 7명 중 4명이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며 약진했다. 자치행정국장에 홍은영 제주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안전교통위생국장에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이, 복지가족국장에 김지경 제주도 노인복지과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경제일자리국장에는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서귀포시의 인사 규모는 승진 79명, 전보 283명, 도 교류 45명 등 463명이다. 자치행정국장에 부미선 청정환경국장이 발령됐다. 복지위생국장에 강연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 김영아, 청정환경국장에 현은정 지방서기관이 제주도에서 전입되면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제주시 부시장에는 채종우 지방부이사관이 내정됐고, 서귀포시 부시장에는 현재 시장 자리가 공석으로 김원칠 부시장이 유임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알림

2026 JDC와 함께하는 1차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한라일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총 2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일시 : 9월 5일(토)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 한라일보 3층 회의실(제주시 서사로 154)
▸모집대상 : 20명 내외(초등학교 3~5학년, 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 9월 4일(금)까지
▸접수방법 : 링크(https://forms.gle/WjaZkoAr6R3hdSYw5) 또는 QR코드
*선착순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또는 문자
▸교육내용 : 만장굴을 발견한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횃불하나로 어둠을 밝히다
▸문 의 : 010-4369-3011 ※2차는 9월 12일(토) 진행 예정

공동기획 : 한라일보 · JDC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추진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대상
도, 전담팀 구성해 농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3가지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경락 가격이 그해 목표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 지원 없이 제주도 자체 기금으로 운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당근 재배 농가에 12억17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3가지 제주형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2700곳에 66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기준을 기존 월별 평균가격에서 15일 단위 평균가격으로 세분화했다.

또 올해 시행에 앞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사업비 배분 기준 재정비와 지원 절차 간소화, 보장 범위 조정을 골자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품목단체, 농협, 수급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사업비 배분기준 개편과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9월까지 논의한 뒤 결과를 도출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가 소득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허위 종결된 '실종사건' 또 있었다… 4면